

# 창업성과 투자회수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소자본 자영업 창업을 중심으로

강개석 (중앙대학교 연구원)\*  
이종건 (중앙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창업성과 투자회수에 대한 결정요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20개의 소자본 자영업 창업업체를 대상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성과 투자회수의 결정요인으로서 창업유형(전문창업 또는 모방창업), 창업자의 개인특성(연령, 전문성), 사업특성(상권위치, 창업규모, 가족경영)을 선정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창업이 창업성과 투자회수에 대하여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자의 개인특성에 있어서 창업자의 연령은 투자회수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으며, 창업자의 전문성은 창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상의 특성에 있어서 가족경영은 창업성과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이 있는 반면에 투자회수에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규모는 투자회수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이론적·논리적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핵심주제어: 전문창업, 연령, 전문성, 상권, 창업규모, 가족경영, 창업성과, 투자회수

## 1. 서론

창업의 중추 세력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들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창업 및 경영은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전병찬 외, 2000). 창업은 제한된 유형자원을 가지고 있는 불확실한 환경 안에서 운영하는 개인의 창의적 주도권을 통하여 기회를 만듦으로써 경제적 부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정의된다(Austin et al., 2006 Mitchell et al., 2002). 창업의 개념은

\* 중앙대학교 연구원, kks2246@empal.com

\*\* 중앙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jkeonlee@cau.ac.kr

제한된 자원에 직면한 가운데 혁신적인 과정의 전개를 통하여 기회 또는 환경적 촉매를 이끌어 내는 사람들을 포함한다(Handy, Ranade, & Kassam, 2007; Mitchell et al., 2002; Schaper & Volery, 2004). 창업자는 이러한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공하리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출발하지만 창업의 현실은 냉정하여 무수한 난관이 창업자를 기다리고 있으며, 많은 창업자들이 실패를 겪고 있다.

소자본 자영업 창업은 기업마다 정년이 짧아지고, 구조조정이 심해지는 현 시점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한 번씩은 생각해 볼만한 매력적인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2010년 7월,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수는 570만 6,000명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10). 자영업 창업시장은 IMF에 의한 대량 실직자, 갈수록 더해가는 대기업의 구조조정, 창업에 대한 대다수의 관심, 정부의 창업 지원 장려 정책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과포화 된 지 오래이다. 특히, 상시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들의 발생은 고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발생한 실직자들의 대부분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무리한 창업을 서둘러 시도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창업을 사전 준비 없이 창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결과적으로 창업시장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훨씬 많은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경쟁에서 이겨낸 소수 창업자만이 생존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자본 자영업 창업에 있어서 창업성공에 미치는 결정요인과 창업을 위한 초기투자 비용을 회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하는데 있다. 첫째, 소자본창업의 유형이 창업성공 및 투자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 유형을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유형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창업자의 개인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다양한 개인특성 가운데 창업자의 연령과 창업자의 전문성에 중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창업업체의 사업적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업특성 가운데 상권, 사업규모, 가족경영 여부에 중점을 둔다. 소자본 자영업 창업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창업성공 및 투자회수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이론적 기여뿐만 아니라 실질적 시사점의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연구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의 설정

### 2.1 소자본 자영업 창업의 현황

지금의 소자본 창업시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장기불황으로 인해 예비창업자들이 대거 몰려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다. 평생직장의 실종으로 기존의 직장인, 실직자, 미취업 졸업자, 추가소득이 필요한 주부 등의 창업

하려는 계층이 다양해진 것도 특징이다. 소자본 창업은 전문화 또는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아이템보다는 기존 사업에 차별화를 가미한 아이디어 사업들이 창업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소비수준이 다양해지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쪽으로 소비풍토에 따라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는 반면, 꼭 필요한 것은 오히려 고품격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풍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양극화 현상이 짙어지면서 초저가 아이디어 아이템이 눈에 띄게 늘어난 점도 창업시장의 환경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양한 계층의 관심이 창업시장에 집중되면서 그 포화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된 환경 변화는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생계형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IMF이후 노동법 변화에 따른 기업의 상시구조조정, 청년층의 취업란, 사회의 초고령화 등 직장을 다니지는 않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직장관의 변화이다. 전통적인 우리의 직장관은 일본과 같이 평생직장의 개념으로 한번 입사하면 천직으로 여기고 평생 근무하는 개념이었으나 이러한 직장관이 바뀌고 있으며 현재의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하겠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일하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기보다는 직장경험을 바탕으로 언젠가는 창업을 해서 사장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대학생 창업의 증가이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각 대학의 창업 강좌와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창업연령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대학생 창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활동이 우수한 창업동아리를 신규발굴하고 학생 창업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정신을 갖춘 학생들에게 창업가정신 배양 및 창업관련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30개 대학 및 고등학교 소속의 창업동아리에 시설품 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창업동아리 중 활동이 우수한 선도 동아리를 발굴, 지원하여 지속적 아이템 개발 촉진 및 사업화 유도와 창업동아리 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선별된 창업동아리에 아이템개발비 및 개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넷째, 여성창업자의 증가이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가 당연시되고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창업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창업은 주로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20대와 30대 미시족들은 남성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감각적인 아이디어를 내세워 여성창업의 주역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류를 반영하듯 덩크족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다.

다섯째, 정부의 소자본 창업지원 정책의 축소이다. 최근 정부의 정책은 기존 아이템

을 모방창업 하는 것이 대부분인 소자본 창업지원보다는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소자본 창업의 지원은 창업 자본금 대출 등 직접지원 보다는 창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정보의 제공, 창업이후에 운영과 관련된 컨설팅 위주로 지원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시장의 가장 큰 환경요인으로는 프랜차이즈의 난립을 들 수 있다. 물론 프랜차이즈 사업체들 중에는 차별화된 프랜차이즈 패키지와 운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맹점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체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요즘에는 어떤 아이템이 뜨기만 하면 순식간에 동종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여러 개 생겨나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좋은 아이템의 라이프 사이클을 줄여 놓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관련 업종을 금방 쇠퇴기로 접어들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 2.2 창업성과

창업성과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성공 및 투자회수로서 창업성과를 측정하였다. 창업성공은 창업업체의 월평균 순이익과 사업장의 존속기간으로 구분하였다. 월평균 순이익은 창업성과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그리고 사업장의 존속기간은 창업한 기업의 시간 경과에 따른 성공률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창업 기업의 실패의 확률과 위험도를 알아내는데 중요한 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의 실패율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소기업 중심을 이루어져 왔다. 박춘엽(199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27.6%가 창업 후 1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 후 2년째 도산하는 기업은 13.8%이고, 3년째에 도산하는 기업도 11.2%이다. 결국 3년 이내에 창업기업의 53.6%가 도산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창업 기업의 성공률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창업기업의 성공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 사업의 창업 성공률은 20%내외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이 창업기업이 3년 이상 존립할 수 있을 확률은 50%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투자회수는 초기 투자비의 회수를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회수하였는지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 2.3 창업성공 및 투자회수의 결정요인

소상공인 창업 및 성공 속성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이 정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성공을 보는 기준도 다양하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창업의 성공요인에 접근하는 방식들을 살펴보면, 그 첫째는 주

요 성공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려 하는 입장으로서는 창업의 고유한 특성에서 그 요인을 밝혀내려는 입장과, 둘째는 성공을 위하여 기업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구성요인을 갖추어야 하는 것 인지를 밝히려는 입장이다(Park & Maillie, 1982). 현재까지 연구가 진행되어 온 창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전자에 속하며, 후자의 경우는 성공요인을 많은 환경요소와 연결하여 연구하였는데 주로 창업가의 환경전략, 자원전략, 조직 특성이 포함된다.

Macmilan(1986)은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을 비교한 결과 차이점은 창업팀의 특성(위험감수 능력, 시장 파악 능력 등), 서비스와 제품특성, 시장특성(침단기술, 시장성 등), 재무적 특성(ROI, 시장점유율 등) 등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Quinn(1979)은 새로운 창업기업의 성공요인으로 창업자의 광적인 실천력, 회사 발전 과정에 생기는 여러 혼란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집, 차고까지도 사업장으로 이용함으로써 간접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재무관리 능력, 신규아이템으로 시장진입 시 각종비용의 최소화, 장기적인 안목, 시장 중시 태도 등에 대한 실천능력을 성공요인으로 보았다. Rothwell(1977)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효과적인 협동, 전사적인 과업으로서의 혁신, 효과적인 개발업무, 계획 및 경영기술, 경영의 질, 인사정책, 경영 스타일, 마케팅 능력과 소비자 욕구 파악, 주요 임직원의 능력 등 8가지를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다. 정성한과 김해룡(2001)은 소상공인의 창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소상공인의 개인특성요소, 자금조달과 관련된 요소, 경영관리요소를 제시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성공적인 창업자의 공통적 개인적 특징으로 성별, 연령, 학력, 경험, 심리적 특성을 다루어 왔다(Bird, 1993; Gartner, 1989). 자금조달관련 요인은 창업자들이 새로운 사업체를 계획할 때 창업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하는 지와 관련된다. Cooper 외(1991) 및 Roberts(1970)는 보다 많은 자금을 가지고 창업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한다. 경영관리요인은 마케팅 활동, 자금통제, 계획, 상담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성공 및 투자회수와 같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창업유형(전문창업, 모방창업), 창업자의 개인특성(연령, 전문성), 사업특성(상권, 창업규모, 가족경영)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창업유형은 창업성공과 투자회수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창업은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창업은 전문창업과 모방창업,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업종에 따른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인중심의 창업과 팀 중심의 창업, 무점포 창업과 점포중심의 창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창업과 모방창업에 창업에 중점을 둔다. 전문창업이란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에 창업자가 생각해낸 새로운 가치나 차별점을 접목시켜 새롭게 아이템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창업을 하는 유형을 말한다. 기존의 창업 아이템에 새로운

차별화 요소를 점주가 개발해 내어 운영에 반영한다던가, 기존에는 없던 아주 새로운 사업모델로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차별화 또는 새로운 사업모델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개발해 내는지의 여부에 있다. 기존의 아이템에 새로운 차별화 요소를 가미한 창업은 성공가능성이 높겠지만, 이러한 업그레이드형 창업과는 달리 기존에는 없던 아주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혁신적인 창업의 경우 실패의 위험성에 빠지기 쉽다.

한편으로, 모방창업이란 기존의 창업 아이템을 조금의 변형도 없이 그대로 따라하거나 답습하는 유형을 뜻한다. 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컨설팅을 받고 직접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모방창업이란 특별히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 않고 기존의 아이템을 고르는 식의 창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러한 기술이나 서비스 패키지를 돈을 주고 그대로 옮겨오는 창업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전문창업이 모방창업에 비하여 아이템의 독창성이 강하고 이익달성이 더 용이함으로써 창업성공 및 투자회수에 더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창업자의 연령에 따라 창업성공과 투자 회수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령이 많을수록 인생경험도 많을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신중함과 창업에 대한 사전 준비가 더 철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창업자의 전문성은 성공적인 창업자의 중요한 특성이다(Roure & Maidique, 1986). 관련경험이 풍부한 창업자가 성공적인 기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Cooper & Bruno, 1977). 창업자의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이 클수록 창업성고가 높아질 것이다. 창업자가 관련 아이템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많을수록 고객에 대한 가치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또는 방법을 개발해 낼 것이다. 또한, 창업의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창업자가 창업활동에 대한 주도성을 가질 수 있으며, 사업의 생명력을 키울 수 있다.

넷째, 상권의 위치가 창업성공 및 투자회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심상권은 주택가상권에 비하여 창업성공 및 투자회수가 더 어려울 것이다. 5일 근무제의 실시에 따라 소매업의 소비패턴이 직장 주변에서 가정 중심으로 옮겨지고 있지만, 거꾸로 아직도 도심의 경우 초기투자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증금과 권리금의 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섯째, 창업규모에 따라 창업성공 및 투자회수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상권분석을 할 경우 점포의 크기나 평수가 클 경우 동종 업종의 경우 동일 상권에서 더욱 높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힘이 커지기에 투자비와 같은 창업규모가 클수록 창업성공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투자비가 커지면 투자회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경영인지 아니면 단독경영인지에 따라 창업성공과 투자회수 정도

가 달라질 것이다. 단독경영보다 가족이 함께 운영한다면 운영에 대한 열정이 높은 것은 물론이며, 인력관리 및 인건비와 같은 부분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어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전문창업일수록 창업성공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1-2. 전문창업일수록 투자회수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1. 창업자 연령이 많을수록 창업성공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2. 창업자 연령이 투자회수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3-1. 창업자의 전문성이 클수록 창업성공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3-2. 창업자의 전문성이 클수록 투자회수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4-1. 도심상권일수록 창업성공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4-2. 도심상권일수록 투자회수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5-1. 창업규모가 클수록 창업성공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5-2. 창업규모가 클수록 투자회수의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가설 6-1. 가족경영일수록 창업성공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6-2. 가족경영일수록 투자회수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 3.1 연구자료

연구는 조사항목에 부합한 조사 집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서울 도심의 중심 상권 중에 하나인 신촌상권과 주택가 상권으로 일산지역과 수원 팔달구 지역을 중심으로 120개의 창업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해당 사업체의 규모는 자영업자로 한정하였다. 소매 업종과 숙박 음식업종 그리고 개인서비스업 등 점포를 갖고 창업을 하는 업종으로 한정하였고, 제조업과 같이 소자본 점포창업이 어려운 아이템은 비교가 어려우므로 배제하였다. 창업사업자 형태는 개인사업자로 하고, 창업규모는 창업자를 포함하여 10인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연구조사 준비단계로 2007년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설문지의 완성, 연구 조사업체의 확정, 조사자의 선발이 이루어졌으며 다음단계로 2007년8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직접 방문 설문이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120개의 창업업체에 대한 설문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이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창업자들이 직접 설문에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5세이고, 남성이 84명(70%)이고, 여성이 36명(30%)이다. 가족운영을 하는 업체는 16개(13.3%)이고, 단독운영 업체가 104개(86.7%)이며, 도심상권이 65개 업체(54.2%)이고, 주택가상권이 55개 업체(45.8%)이다. 창업업체의 업종은 외식업이 92개 업체(76.7%)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 15개 업체(12.5%), 판매업 13개 업체(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66개 업체(55%)이고, 비가맹점 54개 업체(45%)였다.

### 3.2 변수 측정

#### 3.2.1 독립 및 통제변수

본 연구는 창업성공 및 투자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창업유형, 창업자의 개인특성, 사업특성을 측정하였다. 첫째, 창업유형은 전문창업과 모방창업으로 구분하여 측정되었다. 메뉴 및 서비스의 자체개발여부, 인테리어의 자체개발여부, 상호 및 간판의 자체개발여부, 프로모션의 기획 및 개발의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각각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요소의 합이 높을수록 모방창업이며, 각 요소의 합이 낮을수록 모방창업이다. 요인분석 결과, 프로모션의 기획 및 개발은 공통성 값이 0.4 이하가 되어서 제외되었으며, 메뉴 및 서비스의 자체개발여부, 인테리어의 자체개발여부, 상호 및 간판의 자체개발여부의 세 가지 항목을 하나의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둘째, 창업자의 개인특성은 창업자의 연령과 사업에 대한 전문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창업자의 연령은 연속척도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창업자의 전문성은 창업자가 창업 전에 사업 분야에 대해 얼마만큼 동일한 사업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 전혀 관련이 없다, 2: 관련이 없는 편이다. 3: 관련이 있다, 4: 관련이 많다. 5: 동일한 사업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특성은 상권의 위치, 창업규모, 가족경영 여부로 구분하여 측정되었다. 상권은 사업장의 위치가 도시에 있는 지 또는 주택가에 있는 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1: 도심상권, 0: 주택가상권). 창업규모는 투자비의 크기를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1: 5천만 원 미만, 2: 5천만-1억 원 미만, 3: 1억-2억 원 미만, 4: 2억-3억 원 미만, 5: 3억 원 이상). 그리고 가족경영 여부는 창업을 가족이 함께 하



고 있는 지 또는 혼자서 하고 있는 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1: 가족경영, 0: 단독경영).

본 연구는 창업자의 성별(1: 남성, 0: 여성)과 창업업종(외식업, 판매업, 서비스업)을 통제하였다.

### 3.2.2 종속변수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창업성과 투자회수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창업성공은 수익성과 창업지속기간의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수익성은 월평균 순이익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 적자, 2: 100만 원 미만, 3: 100만 원-250만 원, 4: 251만 원-500만 원, 5: 500만 원 초과). 창업지속기간은 소자본창업기업의 50%이상이 3년 내에 폐업을 한다는 박춘엽(1998)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1: 1년 미만, 2: 1년-2년 미만, 3: 2년-3년 미만, 4: 3년-4년 미만, 5: 4년 이상). 다음으로, 투자회수는 초기 투자비를 모두 회수했는지의 여부를 ‘아직 회수하지 못하였다.’와 ‘모두 회수하였다.’의 범주형 척도를 측정하였다.

## IV.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하여 창업성공에 대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고, 범주형 척도인 투자회수에 대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창업성공 및 투자회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창업유형, 창업자의 개인특성(연령, 전문성), 사업특성(상권위치, 창업규모, 가족경영)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성별과 업종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가설 1은 전문창업일수록 창업성공과 투자회수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다. 분석결과, <표 1> 및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문창업은 창업성공과 투자회수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342$ ,  $p < .001$ ;  $B = 1.638$ ,  $p < .01$ ). 그리하여 위계적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로부터 가설 1-1과 1-2는 지지되었다.

가설 2는 창업자 연령이 많을수록 창업성공과 투자회수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다. 분석결과, 창업자 연령은 투자회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 = .096$ ,  $p < .01$ ), 창업성공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12$ , n.s.). 그리하여 위계적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로부터 가설 2-2는 지지되었으며, 가설 2-1은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3는 창업자의 전문성이 클수록 창업성공과 투자회수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다. 분석결과, 창업자의 전문성은 창업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265, p < .01$ ), 투자회수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12, n.s.$ ). 그리하여 위계적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로부터 가설 3-1은 지지되었으며, 가설 3-2는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4는 도심상권일수록 창업성공과 투자회수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다. 분석결과, 상권의 위치는 창업성공 및 투자회수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049, n.s.$ ;  $B = .047, n.s.$ ). 그리하여 위계적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로부터 가설 4-1과 4-2는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5는 창업규모가 클수록 창업성공과 투자회수가 부정적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다. 분석결과, 창업규모는 투자회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 = -.652, p < .01$ ), 창업성공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41, n.s.$ ). 그리하여 위계적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로부터 가설 5-2는 지지되었으며, 가설 5-1은 지지되지 않았다.

<표 1> 창업성공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a

변수	모형 1		모형 2	
	$\beta$	t	$\beta$	t
1단계: 통제변수				
성별 <sup>b</sup>	-.087	-.958	.006	.080
업종 더미1 <sup>c</sup>	-.250 **	-2.768	-.132 +	-1.889
업종 더미2 <sup>c</sup>	-.090	-.988	.023	.335
2단계: 독립변수				
전문창업			.342 ***	3.819
창업자 연령			.112	1.548
창업자 전문성			.265 **	3.144
도심상권 <sup>d</sup>			-.049	-.645
창업규모			-.041	-.547
가족경영 <sup>e</sup>			.188 *	2.476
$\Delta R^2$	.076*		.453***	
Adjusted R <sup>2</sup>	.052		.490	
F	3.175*		13.717***	
자유도(df)	3, 116		9, 110	

<sup>a</sup> N = 120, <sup>b</sup> 남성=1, 여성=0, <sup>c</sup> 외식업(1), 판매업(2), 서비스업(3)로 구분되며 2개의 변수로 더미화 함. <sup>d</sup> 도심상권=1, 주택가 상권=0, <sup>e</sup> 가족경영=1, 단독경영=0,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2> 투자회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a

변수	모형 1		모형 2	
	B	Wals	B	Wals
1단계: 통제변수				
성별b	-.120	.078	.833	1.527
업종 더미1c	-1.646 *	4.358	-1.568	2.700
업종 더미2c	-20.954	.000	-20.885	.000
2단계: 독립변수				
전문창업			1.638 **	9.118
창업자 연령			.096 *	4.701
창업자 전문성			.394	.860
도심상권d			.047	.005
창업규모			-.652 *	4.506
가족경영e			-2.166 +	3.851

a N = 120, b 남성=1, 여성=0, c 외식업(1), 판매업(2), 서비스업(3)로 구분되며 2개의 변수로 더미화함. d 도심상권=1, 주택가 상권=0, e 가족경영=1, 단독경영=0,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가설 6은 가족경영일수록 창업성공과 투자회수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다. 분석결과, 가족경영은 창업성공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beta = .188, p < .05$ ), 투자회수에 대하여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2.166, p < .10$ ). 그리하여 위계적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로부터 가설 6-1은 지지되었으며, 가설 6-2는 지지되지 않았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소자본 창업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점포 자영업의 창업성공과 투자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첫째, 전문창업이 창업성공과 투자회수에 대하여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문창업이 모방창업보다 창업성공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제시한다.

둘째, 창업자의 개인특성은 창업성공과 투자회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 연령이 많을수록 투자회수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성공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창업자의 전문성이 클수록 창업성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회수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투자회수에 긍정적이며,

창업 전에 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많을수록 창업성공이 높아진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마지막으로, 창업의 사업특성이 창업성공과 투자회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규모가 클수록 투자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경영은 창업성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투자회수에 대해서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가설검증결과 요약

가설	독립변수	종속변수	방향	결과
1-1	전문창업	창업성공	+	지지
1-2		투자회수	+	지지
2-1	창업자 연령	창업성공	·	기각
2-2		투자회수	+	지지
3-1	창업자 전문성	창업성공	+	지지
3-2		투자회수	·	기각
4-1	도심상권	창업성공	·	기각
4-2		투자회수	·	기각
5-1	창업규모	창업성공	·	기각
5-2		투자회수	-	지지
6-1	가족경영	창업성공	+	지지
6-2		투자회수	-	기각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영업자들의 창업성공 및 투자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창업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자본 자영업 창업을 대상으로 전문창업, 창업자의 개인특성(연령, 전문성), 창업의 사업특성(상권의 위치, 창업규모, 가족경영)이 창업성공 및 투자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 소자본 자영업 창업자들은 전문창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창업자들은 프랜차이즈 창업 또는 독립창업의 여부를 떠나서 자신의 사업에 있어서 제품의 메뉴 및 서비스, 인테리어 디자인, 상호 및 간판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창업성공과 투자회수에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창업보다는 독립창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독립창업의 월 평균수익은 333만원이고(404개 업체 대상), 프랜차이즈창업의 월 평균수익은 236만원(23개)으로서 독립창업의 수익이 프랜차이즈창업의 수익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창업자들의 일부가 독

립창업보다 프랜차이즈창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업운영상의 안정성 때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창업보다 독립창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창업성공 및 투자회수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비창업자는 자영업 창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먼저 차별성이나 경쟁력 개발을 통한 독립창업을 검토하여 보고, 본인의 능력이나 여건상 어려울 경우에는 건전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창업성공을 위한 준비단계라 할 것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은 창업자가 직접 창업성공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 보다는 본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요소인 차별성을 하나라도 창업자가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처음부터 창업자가 직접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아이템을 돈을 주고 사는 형식의 창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이템의 라이프사이클이 빨라지는 요즘의 창업시장에서 아이템이 쇠퇴기에 접어들었을 때 새로운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수익이 적어지거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 스스로 사업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도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이 사업상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아이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소자본 자영업 창업자들은 창업성과의 향상에 있어서 개인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창업자들은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업종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창업자들은 창업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모르는 업종을 선택하기 보다는 창업 전에 이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하자면, 창업자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야 대신에 본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이템의 전망 또는 유행에 따라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또한, 소자본 창업자들은 연령이 투자회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자본 창업자들은 창업성공 및 투자회수를 위하여 사업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창업자들은 창업규모가 클수록 투자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투자의 규모를 늘리는데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자들은 창업에 있어서 가족구성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가족경영이 창업성공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표면상으로는 인건비 절감을 통한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더욱 중요한 원인이 있다. 바로 안정적인 인력관리에 따른 충성고객의 원활한 확보이다. 대부분의 소자본 자영업 창업에서 제품 경쟁력과 함께 중요한 것이 서비스 경쟁력인데 소자본

자영업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력이 잦은 이직과 주인의식 결여로 인하여 충성고객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성공운영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창업성과로서 창업성과와 투자회수에 대한 분석 자료를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의 수집에 따른 어려움으로 설문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창업자의 객관적인 매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설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 신촌지역과 고양 일산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표본선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연구를 통하여 연구결과를 보다 일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창업성과 및 투자회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결정요인으로서 창업유형(독립창업 또는 프랜차이즈 창업), 가족경영, 도심상권, 전문성, 창업규모, 창업자연령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변수 외에 창업자의 마음가짐, 리더십, 네트워크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박춘엽(2000),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용자의 만족도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 22권, 제1호, pp.164-194.
- 전병찬·김정대·박춘엽(2000), “한국의 소상공업의 분포와 함축적 의미”, 『중소기업연구』, 제22권, 제1호, pp.147-168.
- 정성한·김해룡(2001), “소상공인 창업성공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벤처경영연구』, 제4권, 제2호, pp.3-29.
- 통계청(2010. 8. 11), “2010년 7월 고용동향”.
- Austin, J., Stevenson, H., & Wei-Skillern, J.(2006), "Social and Commercial Entrepreneurship: Same, Different or Both?"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30, No.1, pp.1-22.
- Bird, B. J.(1993), "Demographic Approaches to Entrepreneurship: The Role of Experience and Background", In J. A. Katz, and R. H. Brockhaus(Eds.), *Advances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e, and Growth*, 1, 11-48. Greenwich, CT: JAI Press.
- Cooper, A. & Bruno.(1977), "Success among High-technology Firms", *Business Horizons*, Vol.20, pp.16-22.
- Cooper, A., Gascon, J., and Woo, C.(1991), "A Resource-Based Prediction of New Venture Survival and Growth", *Proceedings of Academy of Management*, pp.113-119.
- Gartner, W. B.(1989), "Some Suggestion for Research on Entrepreneurial Traits and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4, pp.27-39.
- Handy, F., Ranade. B., & Kassam, M.(2007), "To Profit or Not to Profit: Women Entrepreneurs in India,"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Vol.17, No.4, pp.383-401.
- Macmillan, I. C., Zeman, L. & P. N. Subba Narasimaha(1986), Criteria Distinguishing Unsuccessful Ventures in the Venture Screening Pro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 pp.119-128.
- Park, W. R. & Mailie, J. B.(1982), *Strategic Analysis for Venture Evaluation*,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Quinn, J. B.(1979) *Technology Innovation, Entrepreneurship and Strategy*,

- Sloan Management Review*, Vol.20, No.3, pp.19-30.
- Roberts, E. B. (1970), "How to Succeed in a New Technology Enterprise", *Technology Review*, Vol.73, pp.25-35.
- Rothwell, R.,(1977) The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Innovators and Technically Progressive Firms, *R & D Management*, Vol.7, No.1, pp.191-206.
- Roure, J. B. & Maidique, M. A. (1986), "Linking Prefunding Factors and High-Technology Venture Succes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 No.3, pp.295-306.
- Schaper, M. & Volery, T. (2004).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A Pacific Rim Perspective*, Australia, John Wiley and Sons.